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방문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상황 등 점검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반월산업단지 내 도금단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뿌리산업 등 취약 제조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중심으로 지난 12월 수립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중점과제를 조속히 집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월 31일(수) 경기도 안산의 반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뿌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현장방문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24.1.31(수), 10:20 ~ 11:20, 반월산업단지(도금단지)
- ▶ 참석 : (정부) 기재부 1차관, 노동시장경제과장 고용부 로드맵이행총괄팀장,
산업부 산업인재전략팀장, 산업단지공단 경기도 지역본부장
(업계) 기양금속공업, 광명금속, 동양전자공업, 해천케미칼,
에스아이티, 우진도금, 지에스캠텍 대표

금번 방문한 도금단지는 도금 및 표면처리 사업체가 집적한 전문단지로, 김 차관은 뿌리 중소기업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애로사항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김 차관은 영세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며,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업계 간담회에서 산단 내 중소기업체의 산업안전 구축을 위해 지난 12월 수립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중점과제를 조속히 집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진단하고, 그간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장 요구가 컸던 공동안전관리자를 도입하여 안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산단 내 산업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후산단 내 공동시설을 스마트 안전산단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그간 현장에서 미비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취약점·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추가 반영해 나가기 위해 고용부·산업부 등 소관부처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현장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 협·단체와 함께 현장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 | | | |
|-------|--------------------|-----|-----|--------------------|
| 담당 부서 |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박성귤 (044-215-85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송상목 (044-215-8551) |
| | | | 사무관 | 변유호 (044-215-8554) |